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An Effect of Residents' Perception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on
Quality of Life

: Regional Comparison between North and South Regions in Gyeonggi Province

이 경 영**·박 관 태***

Lee, Kyung-Young·Park, Kwantae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 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거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도시의 질적 성장과 관련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 관계가 거주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에서 제공한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구 조사 응답자 총 16,000명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설검정은 Baron and Kenny(1986)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은 삶의 질에 긍정적

* 본 연구는 경기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2022년 경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2022.02.11.)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다.

** 제1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논문 접수일: 2022. 2. 23. 심사기간: 2022. 2. 23. ~ 2022. 4. 1. 게재확정일: 2022. 4. 1.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안 및 안전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내 치안 및 안전 환경 개선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삶의 질에 대한 지역 환경 인식의 영향력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주택 및 편의시설 요인의 영향력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각각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 환경을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주제어: 삶의 질, 지역 환경 인식, 지역 간 비교, 조절효과 분석, 경기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perception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an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differed depending on the residential areas. We analyzed 「2020 Residents' Quality of Life Survey in Gyeonggi Province」 and employed a moderating effect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residents' perception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security and safety environmental facto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Second, the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on the quality of life differed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s. Specific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f housing and convenience facilities factors was strengthened in north regions, and the influence of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was increased in south regions. This means that the discriminatory approach should be made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figuring out considerations in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 Keywords: Quality of Life, Perception of Community Environment, Regional Comparison, Moderating Effect Analysis, Gyeonggi Province

I. 서론

최근 들어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용률이나 지역 내 총생산(GRDP) 등 경제적 측면의 지표들이 중요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주민의 삶의 질, 공동체 활성화 등 질적 지표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송주연·임석희, 2015). 이를 반영하듯 오늘날 국내 주요 도시들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반대로 지역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삶의 질 저하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은 도시의 질적 성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Lee, 2020). 그러나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Better Life Index 2020”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질은 조사에 참여한 전체 35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OECD, 2020).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¹⁾.

삶의 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이현송, 2000; 임근식, 2012; 임보영·마강래, 2016; Stevenson and Wolfers, 2013).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일차적으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이희창 외, 2004). 이에 기초하면 지역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역 환경 인식은 지역적 특성에 기초하는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거주 지역 간에 도시화 수준 및 시설 현황, 산업단지 조성 정도 등이 차이를 보인다면, 지역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김옥진, 2017; 이경영·정문기, 2019; 이영균·김동규, 2007; 임준홍, 2015; 최희용·전희정, 2017; Aruta et al., 2021). 나아가 이는 지역 환경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역시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지난 민선 7기의 주요 중점 과제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제시한 바 있다²⁾. 이는 곧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 수준을 증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1) 뉴시스. 2021.02.13. “코로나 이후 ‘삶의 만족도’ 30대·여성·미혼자 전체 평균보다 낮아”(검색일: 2021.11.31.)

2) 중부일보. 2020.07.01. “민선7기 ‘이재명호’ 후반기 돌입...“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 목표”(검색일: 2021.11.31.)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외에 독자적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과 경기도 맞춤형 주거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장윤배, 2018).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북부와 남부의 지역 간 격차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들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하였다³⁾. 이상의 논의들은 ‘경기도’가 본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적합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역 환경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결국 본 연구는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 관계가 거주 지역에 기초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삶의 질,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 간 비교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어 선행연구에 기초해 변수 간 관계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은 SPSS v.23을 활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차이검증 및 조절효과 분석 순으로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

도시의 발전은 크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지역 인구나 경제 규모의 증가 등이 전자에 속하며, 거주민의 삶의 질이 후자에 해당한다. 물론 바람직한 도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균형적으로 달성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그간 한국 사회에서는 양적 발전에만 치우친 채, 질적인 측면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이는 물질적 풍요가 먼저 달성되어야 그 혜택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기인한다. 그로 인해 도시 관리에 있어 늘 ‘양적 성장’과 ‘효율성’이 ‘형평성’에 비해 우선시 되어 왔다(송주연·임석희, 2015).

3) 연합뉴스. 2021.11.24. “경기도 산하 15개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이달부터 본격화”(검색일: 2021.12.02.)

한편,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한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성장’(low-growth)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조명래, 2011).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학계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의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오늘날 중요한 화두로 자리를 잡고 있다(이병호·손웅비, 2017).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행복’(happiness),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Lee, 2020).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이라는 개념을 내포한다(OECD, 2020; Sirgy, 2012; Veenhoven, 2012).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직업 등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이현송, 2000; 임근식, 2012; 임보영·마강래, 2016; Stevenson and Wolfers, 2013). 예를 들어, 임근식(2012)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직업을 가질 경우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일부 연구들에서 개인은 누구나 현재 살고 있는 거주 지역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관심을 일차적으로 충족시키려 한다고 설명한다(이희창 외, 2004; Lee, 2020). 따라서 개인들이 매일 접하게 되는 지역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은 삶의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 수준을 중심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요인 간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지역 환경 인식과 삶의 질의 관계

지역 환경은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주변의 환경적 조건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Özkan and Yilmaz, 2019). 이때 지역 환경은 다양한 하위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배은석·박해금(2016)은 이를 크게 공간적 측면(spatial aspect)과 관계적 측면(relational aspect)으로 구분한다. OECD(2011)에서도 지역 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물리적 환경과 함께 이웃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WHO(1961)는 편의성(convenience), 건강성(health), 안전성(safety) 등을 지역 환경의 질(quality)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지역 환경에 대해 공간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주택 및 편의시설, 자연환경, 치안 및 안전환경, 보건의료 환경, 사회적 환경 등의 하

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 환경에 대해 주민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활용하였다. 물론 지역 내 상업시설 수나 녹지공원 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환경에 대해 주민들이 인식하는 수준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일부 주민들은 지역 내 녹지공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할 경우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도보 10분의 거리는 너무 멀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관적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제시한 하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Özkan and Yilmaz, 2019). 예를 들어, De Vos and Witlox(2017)의 연구에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이원분·유용상(2014)은 지역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녹지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지역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환경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들에서 거주지가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거주민의 삶의 질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e Vos and Witlox, 2017; Martínez et al., 2015). 또한, 지역 내 보건의료환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강혜진·차세영, 2018). 끝으로 사회적 환경은 일반적으로 이웃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Boessen et al., 2018; Sirgy and Cornwell, 2002). 구체적으로 Sirgy and Cornwell(2002)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이웃들과의 양호한 관계 역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Boessen et al.(2018) 또한 낮은 이웃만족도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논의들에 기초하면 주민들이 지역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삶의 질 역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H1: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주택 및 편의시설, 자연환경, 치안 및 안전환경, 보건의료환경, 사회적 환경)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역 환경 인식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지역 간 차이

지역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다. 따라서 지역의 도시화 수준이나 시설 현황, 산업단지 조성 정도 등이 거주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인다면 지역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 역시 상이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그 정도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은 경제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는 특정 공간에 경제활동이 집적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경로의존성에 따라 특정 공간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심화된다(김용·조성호, 2021; 신동호, 2017). OECD의 한국지역정책보고서(국토교통부, 2013)에서도 한국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자본과 유능한 인재의 불균등한 분포, 지리적 집중화에 따른 집적경제성의 차이 등을 주요 원인으로 열거한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는 국가 혹은 지역에서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개발정책이 일부 지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결과물의 분배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여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다(소진광, 2020). 이 두 가지 측면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중심의 개발정책이 시행되고 이후 각종 산업시설의 지리적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 지역으로 다루고 있는 경기도는 이미 언론 및 학계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북부와 남부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 그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 간 격차는 수도권의 동남권 중심 개발계획 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군사보호시설이나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의 차이가 누적되어 왔다고 설명한다(김은경·문영민, 2016). 실제로 <표 1>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경기 북부 지역이 1,889.2 km²로 남부 지역 473.9 km²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분포는 도시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전체 면적 중 도시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남부 지역은 40.6%인 반면 북부는 22.7%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단지 수 및 규모를 보면 경기 북부는 산업단지 수가 57개, 규모가 19,576 km² 이었으나, 경기 남부는 173개, 127,341 km² 로 경기 남부 지역에 산업단지가 보다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지역 내 총생산 역시 경기 남부가 393,509,169 백만 원, 북부가 83,904,283 백만 원으로 두 지역 간에 약 4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경기 북부와 남부 간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1〉 경기 북부와 남부 간 각종 지표 비교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인구 수 (2019년 기준)	341만 4천명	973만 2천명
도시지역 면적 비중 ⁴⁾	22.7%	40.6%
군사시설 보호구역 (2019년)	1,889.2 km ²	473.9 km ²
지역 내 총생산 (2019년)	83,904,283 백만 원	393,509,169 백만 원
산업단지 수 및 규모 (2019년)	57개 (19,576 km ²)	173개 (127,341 km ²)

출처: 연합뉴스. 2019.06.16. “[그래픽] ‘경기분도론’ 경기 남·북부 각종 지표 비교” 및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한편, 지역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지역 간 격차에 기초해 거주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이는 지역 환경 인식과 삶의 질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삶의 질에 대한 지역 환경 인식의 영향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장한두(2020)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민 간의 주거 만족 영향요인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공원 이용 편의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의료편의시설 접근성이나 설비 기반시설 등의 요인이 주거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임준홍(2015)은 읍·면·동 지역에 따라 주거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하였는데, 주택 및 주거지의 안전성은 ‘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의료환경 요인은 ‘동’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이경영 외(2018)의 연구에서는 지역 내 지속거주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이 서울시 5대 생활권⁵⁾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남권에서는 이웃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이, 서남권에서는 주거 유지비용 등 경제성이 각각 지속거주의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에는 각종 오피스 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여건이 우수한 소위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서남권은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구로구와 금천구 등이 포함된 지역이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다룬 수도권-비수도권, 읍·면·동 지역, 서울시 5대 생활권 등은 도시화 수준이나 기반시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주거 만족이나 지속거주의향은

4) 도시지역 면적은 행정구역 기준 동·읍에 해당하고 용도구역 기준으로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을 의미한다(통계청).

5)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는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역시 지역적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 거주 지역 간에 서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기하였다.

H2: 삶의 질에 대한 지역 환경 인식의 영향은 거주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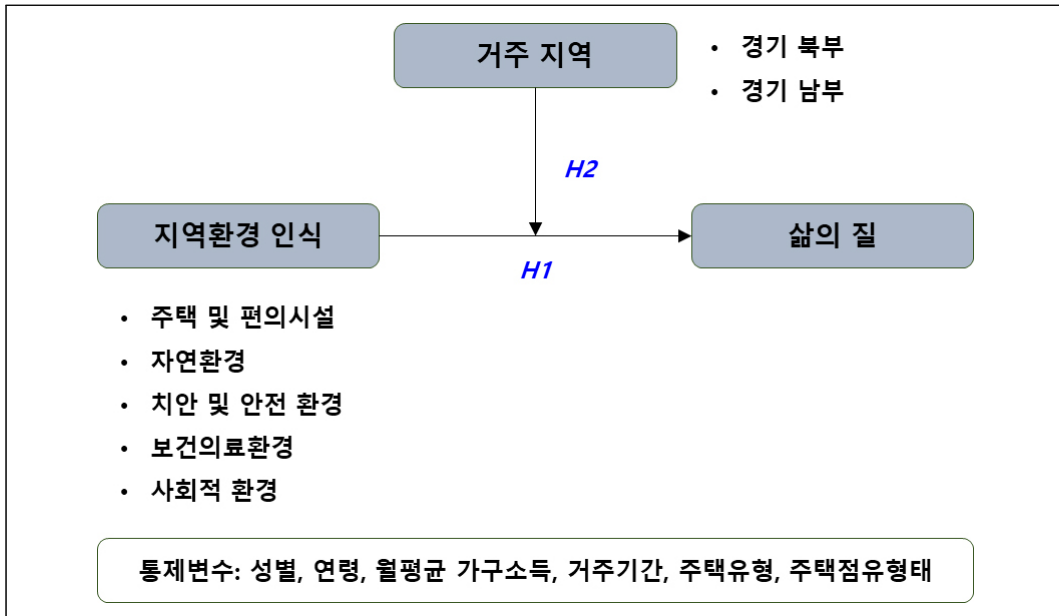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 영향 관계가 거주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은 OECD(2011) 및 WHO(1961)에서 제시하는 지역 환경 평가 기준들에 기초하여 주택 및 편의시설, 자연환경, 치안 및 안전환경, 보건의료환경, 사회적 환경 등의 하위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른 변수 간 영향 관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응답자의 시군 정보를 기초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로 구분하였다⁶⁾.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은 도시화 수준 및 산업단지 조성 정도 등 발전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기초한 경기 북부와 남부의 구분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삶의 질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성별,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기간, 주택유형, 점유형태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이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이영균·김동규, 2007; 임근식, 2012; Aruta et al.,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⁶⁾ 경기 북부(10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파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경기 남부(21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2020년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기도민의 삶의 형태와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표본 추출 시에는 31개 시군 단위, 동부/읍면부 단위로 층화한 후 집계구 내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통 추출하는 다단계층화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유정균 외, 2021). 한편,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크게 가구주 조사와 가구원 조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조사항목이 대상 집단 간에 일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삶의 질을 주요 변수로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가구주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주 기간이나 주택 및 편의 시설 만족도, 월평균 가구소득 등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조사 응답자 총 16,000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자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6,595명(41.2%), ‘여자’가 9,405명(58.8%)로 여자의 비율이 좀 더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6,099명(38.1%)으로 가장 많이 수집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

만'이 5,498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9.0%), '200만원 미만'(22.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10년 이상'(5,960명, 37.3%)이 가장 많았고,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8,773명(54.8%), '아파트 외'가 7,227명(45.2%)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거주자가 11,477명(71.7%)으로 '자가 외' 거주자(28.3%)에 비해 많았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경기 북부'가 5,015명(31.3%), '경기 남부'가 10,985명(68.7%)로 집계되었다.

〈표 2〉 응답자 특성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6,000	100.0
성별	남자	6,595	41.2
	여자	9,405	58.8
연령대	20대	393	2.5
	30대	2,199	13.7
	40대	3,015	18.8
	50대	4,294	26.8
	60대 이상	6,099	38.1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566	22.3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498	34.4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644	29.0
	600만원 이상	2,292	14.3
거주 기간	3년 미만	3,577	22.4
	3년 이상 5년 미만	2,421	15.1
	5년 이상 7년 미만	2,211	13.8
	7년 이상 10년 미만	1,831	11.4
	10년 이상	5,960	37.3
주택 유형	아파트	8,773	54.8
	아파트 외	7,227	45.2
점유 형태	자가	11,477	71.7
	자가 외	4,523	28.3
거주 지역	경기 북부	5,015	31.3
	경기 남부	10,985	68.7

3. 주요 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 항목을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이며, 다수의 연구들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측정도구이다(Veenhoven, 2012).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서는 응답자에 대해 삶의 만족도를 0점부터 10점으로 구성된 10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은 선행연구(배은석·박해금, 2016)에 기초하여 공간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다. 먼저 공간적 측면에 대해서는 주택 및 편의시설, 자연환경, 치안 및 안전환경, 보건의료환경 등을, 관계적 측면은 사회적 환경(이웃관계)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조절변수로 경기 북부와 남부로 구성된 이분형의 범주형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밖에 관련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성별,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기간, 주택유형, 점유형태 등을 통제 변수로 함께 모형에 투입하였다(권혜선, 2018; 임근식, 2012).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변수에 대한 구성

구분		항목	비고
삶의 질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10점 척도(0-10점)
지역 환경 인식	주택 및 편의시설	주택 만족도	4점 척도
		편의시설 만족도	
	자연 환경	녹지 및 자연환경 접근성	4점 척도
		대기오염	
		수질 및 하천오염	
		쓰레기 수거 처리 서비스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	
		축사, 음식물 등 악취	
		소음 및 진동 수준	
		기후변화	
	치안 및 안전 환경	교통사고 안전도	4점 척도
		안전사고 안전도	
		화재사고 안전도	
폭력 범죄 안전도			
전염병 안전도			

구분		항목	비고
	보건의료 환경	지역 의료서비스 충분성	4점 척도
		지역 감염병 안전/예방/관리 서비스 충분성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충분성	
	사회적 환경	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정도	4점 척도
		주민들을 도와주는 정도	
		주민들을 신뢰하는 정도	
거주지역		(시/군) 거주지역	①경기 북부, ②경기 남부로 구분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응답자 성별	①남자, ②여자
	연령	응답자 출생년도	나이로 환산(세)
	월평균 가구소득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원
	거주기간	현재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개월로 환산
	주택유형	①단독주택, ②다가구 단독주택, ③아파트, ④연립주택, ⑤다세대주택, ⑥오피스텔, ⑦기타	①아파트 외, ②아파트로 구분
	점유형태	①자가, ②전세, ③반전세/월세, ④무상	①자가 외, ②자가로 구분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범주형 변수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시군 정보를 바탕으로 거주 지역을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로 구분하고, '경기 남부' 지역을 비교집단으로, '경기 북부'를 기준집단으로 각각 설정한 이분형의 범주형 조절변수를 투입하였다.

Baron and Kenny(1986)의 조절효과 검증은 2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때 조절변수가 직접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상호작용항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의 결정계수(R^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해야 한다. 결과 해석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항의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항이 부(-)의 값을 가질 경우 기준 집단에서, 정(+)의 값을 가질 경우 비교집단에서 각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Baron and Kenny(1986)의 조절효과 검증방법

단계	회귀식	조건
1단계	$Y = \beta_{10} + \beta_{11}X + \beta_{12}M$	
2단계	$M = \beta_{20} + \beta_{21}X + \beta_{22}M + \beta_{23}XM$	β_{23} 이 유의해야 한다 ΔR^2 가 유의하게 증가해야 한다.

출처: 이일현(2019),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IV. 분석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항목을 통해 측정된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탐색적 요인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개별 항목들이 구성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내적 타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시 주성분 요인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총 23개 항목에서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먼저 KMO(Kaiser-Meyer-Olkin)가 0.867, Bartlett 구형성 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요인분석은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⁷⁾. 또한, 개별 요인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요인적재값은 모두 0.4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고유값은 1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요인에 대한 구성 항목의 내적타당성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⁸⁾.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5개 요인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요인을 구성하는 개별 변수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크론바흐알파 값(Cronbach α)을 통해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모두 0.7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 및 편의시설의 경우 0.552로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크론바흐알파 값이 0.6을 상회하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0.5~0.6 사이의 값을 가질 경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수용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George and Mallery,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결과를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7) KMO가 0.5이상일 경우 해당 요인분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이훈영, 2015).

8) 요인적재값은 0.5 이상, 고유값은 1이상일 경우 내적타당성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이학식임지훈, 2017).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변수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비고
지역 환경 인식	주택 및 편의시설	주택상태 만족도	0.795	고유값=1.472 Cronbach α =0.552
		편의시설 만족도	0.745	
	자연 환경	녹지 및 자연환경 접근성	0.485	고유값=3.279 Cronbach α =0.790
		대기오염	0.462	
		수질 및 하천오염	0.647	
		쓰레기 수거 처리 서비스	0.570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	0.670	
		축사, 음식물 등 악취	0.681	
		소음 및 진동 수준	0.585	
		기후변화	0.658	
	치안 및 안전 환경	교통사고 안전도	0.622	고유값=2.666 Cronbach α =0.778
		안전사고 안전도	0.559	
		화재사고 안전도	0.693	
		폭력 범죄 안전도	0.749	
		전염병 안전도	0.748	
	보건의료 환경	지역 의료서비스 충분성	0.793	고유값=2.048 Cronbach α =0.702
		지역 감염병 안전/예방/관리 서비스 충분성	0.706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충분성	0.791	
사회적 환경	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편	0.862	고유값=1.969 Cronbach α =0.749	
	주민들을 종종 도와주는 편	0.856		
	주민들은 신뢰하는 정도	0.682		

*KMO=0.867,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유의도=0.000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표 6〉). 먼저 기술통계분석 결과,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는 ‘주택 및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자연환경 2.89점, 보건의료환경 2.72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환경은 2.61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의 경우 주민들 간의 이웃 관계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한편 삶의 질은 10점 만점에 6.35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요인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보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원태연·정성원,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두 0.6 미만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상관계수						
			1	2	3	4	5	6	
1 주택 및 편의시설	3.00	±0.457	-						
2 자연환경	2.89	±0.448	0.231**						
3 치안 및 안전 환경	2.68	±0.547	0.098**	0.583**	-				
4 보건의료환경	2.72	±0.563	0.275**	0.279**	0.235**	-			
5 사회적 환경	2.61	±0.604	0.082**	0.183**	0.178**	0.148**	-		
6 삶의 질 (10점 만점)	6.35	±1.276	0.217**	0.258**	0.250**	0.216**	0.160**	-	

* $p < 0.05$, ** $p < 0.01$

3. 차이검증

본 연구의 [가설 2]에서는 지역 환경 인식과 삶의 질의 관계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 제안하였다. 만약 개별 요인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러한 지역 간 비교 분석에 대한 타당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 요인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7〉).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삶의 질은 경기 남부 지역이 6.40점으로 북부 지역 6.31점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환경의 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요소들 모두 경기 남부 지역에서 만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 및 편의시설, 치안 및 안전 환경, 보건의료환경에 대해서는 두 지역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처럼 거주 지역에 따라 대부분의 개별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지역 환경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2]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증대한다.

〈표 7〉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구 분		거주 지역		t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삶의 질(10점 만점)		6.31	6.40	-2.418*
지역 환경 인식 (4점 만점)	주택 및 편의시설	2.96	3.02	-7.182**
	자연환경	2.90	2.89	0.434
	치안 및 안전 환경	2.67	2.69	-2.212*
	보건의료환경	2.70	2.73	-2.707**
	사회적 환경	2.60	2.61	-1.217

* $p < 0.05$, ** $p < 0.01$

4. 조절효과 분석

다음은 조절효과 분석 결과이다(〈표 8〉).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해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구분하여 이를 범주형 조절변수로 투입하였다. 우선 [Step 1]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지역 환경 인식, 조절변수인 거주 지역을 투입하였고, 이어 [Step 2]에서는 지역 환경 인식과 거주 지역 간에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이를 추가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에 대해서는 2가지 모형 모두 F값이 유의하였으며, 변수가 추가로 투입될 때마다 결정계수(R^2)가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모든 변수가 투입된 [Step 2]를 기준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17.1%($R^2=0.171$)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가 1.017~1.66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 역시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Step 1]에서는 지역 환경 인식의 하위 요소들 모두 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지역 내 다양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주민의 삶의 질 역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개별 요인 간 영향력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치안 및 안전 환경, 주택 및 편의시설, 사회적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거주지역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결과

			Step 1 (통제+독립+조절)		Step2 (통제+독립+조절+상호작용항)	
			B(S.E)	β	B(S.E)	β
통제 변수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ref: 남성)	0.106 (0.019)	0.041**	0.107 (0.019)	0.041**
		연령	-0.009 (0.001)	-0.099**	-0.009 (0.001)	-0.099**
		월평균가구소득	0.045 (0.002)	0.148**	0.045 (0.002)	0.148**
		거주기간	0.000 (0.000)	-0.007	0.000 (0.000)	-0.006
		주택유형 (ref: 아파트 외)	-0.010 (0.019)	-0.004	-0.015 (0.020)	-0.006
		주택점유형태 (ref: 자가 외)	0.217 (0.023)	0.077**	0.215 (0.023)	0.076**
독립 변수	지역 환경 인식	주택 및 편의시설(a)	0.335 (0.022)	0.120**	0.342 (0.022)	0.123**
		자연환경(b)	0.287 (0.026)	0.101**	0.289 (0.026)	0.102**
		치안 및 안전 환경(c)	0.315 (0.021)	0.135**	0.310 (0.021)	0.133**
		보건 의료환경(d)	0.190 (0.018)	0.084**	0.182 (0.018)	0.080**
		사회적 환경(e)	0.229 (0.016)	0.109**	0.229 (0.016)	0.108**
조절 변수	거주지역 (ref: 북부) (f)	-0.026 (0.020)	-0.009	-0.027 (0.020)	-0.010	
상호 작용항	(a)*(f)	-	-	-0.151 (0.047)	-0.025*	
	(b)*(f)	-	-	-0.003 (0.058)	-0.001	
	(c)*(f)	-	-	0.039 (0.046)	0.008	
	(d)*(f)	-	-	0.061 (0.039)	0.012	
	(e)*(f)	-	-	0.163 (0.033)	0.036**	
상수항			2.417***		2.426***	
표본 수			16,000		16,000	
모형 적합도	F		271.834***		194.453***	
	p-value for ΔF		0.000***		0.000***	
모형 설명력	R ²		0.169		0.171	
	ΔR^2		0.169		0.002	

* $p < 0.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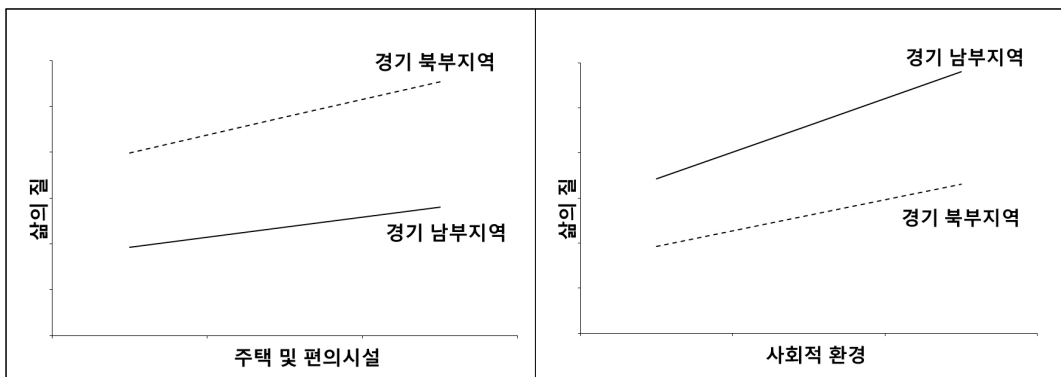
다음으로 [Step 2]에서는 앞서 [Step 1]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 환경 인식의 모든 요인들이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주형 조절변수인 거주 지역의 경우 그 자체로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역 환경 인식의

하위 요소들과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경우 일부 변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주택 및 편의시설(a)*거주지역(f)' 및 '사회적 환경(e)*거주지역(f)'이 삶의 질에 대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각 요인에 따라 상호작용항의 부호는 서로 방향이 달랐다. 즉, 주택 및 편의시설은 상호작용항이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환경은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 및 편의시설 요인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증대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 요인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밖에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점유형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 거주자일 경우 주민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먼저, 주택 및 편의시설의 경우 경기 북부와 남부 두 지역 모두에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하며, 따라서 주택 및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 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환경 요인 역시 두 지역 모두에서 우상향하는 그래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택 및 편의시설 요인과는 달리 경기 남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사회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남부 지역에서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거주지역에 따른 조절효과



5. 토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Veenhoven(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질은 살기 좋은 환경(livability of environment), 개인의 삶의 역량(life-ability of the person), 객관적인 삶의 효용(objective utility of life), 주관적 삶의 만족(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과 같이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살기 좋은 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즉,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공원이나 상점, 대형마트와 같은 편의시설이 지역 내 위치하고, 이로 인해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대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며(고명철, 2013; 이영균·김동규, 2007; 임근식, 2012; Boessen et al., 2018; De Vos and Witlox, 2017; Sirgy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을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 환경의 하위 요소 중 치안 및 안전 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의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처럼 치안 및 안전 환경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은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확산과 더불어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증대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치안 및 안전 환경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중 전염병 안전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⁹⁾.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거주민의 삶의 질에서 치안 및 안전 환경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Sirgy, 2012; von Wirth et al., 2015). 즉, 지역의 치안 및 안전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면 거주민들의 불만족과 스트레스는 증가할 수 있다(von Wirth et al., 2015). 일부 연구에서 거주민들은 핵심 도심의 치안 및 안전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핵심 도심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교외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rchibugi, 2001; von Wirth et al., 2015).

둘째,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주택 및 편의시설 요인의 영향력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해당 결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 치안 및 안전 환경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의 평균(4점 만점)은 안전사고 안전도 2.87점, 교통사고 안전도 2.83점, 화재사고 안전도 2.75점, 폭력범죄 안전도 2.65점, 전염병 안전도 2.31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 간 격차를 누적해 온 핵심 원인은 수도권 동남권 중심 개발계획 및 군사보호시설을 들 수 있다(김은경·문영민, 2016).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주변 상권이 조성되고, 교통 시스템이 구축된다(권오규 외, 2019). 따라서 지역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은 이러한 토지개발 및 신규 아파트 공급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 온 것이다. 이에 노후 주택이 많고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요구가 삶의 질 증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경기 남부 지역은 산업시설의 지리적 집중화로 인해 도시화 및 발전 정도가 경기 북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동시에 이웃 간의 갈등(예: 주차문제, 층간 소음 등)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직적인 구조로 인해 주민들 간의 접촉 기회가 적어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보다 높을 수 있다(정유진, 2014). 따라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이웃 간의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환경 요인이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도시의 질적 성장과 관련해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변수들을 선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영향 관계가 거주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환경 인식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안 및 안전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삶의 질에 대한 지역 환경 인식의 영향력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주택 및 편의시설 요인의 영향력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각각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증대에 대한 지역 환경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삶의 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요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Stevenson and Wolfers, 2013). 그러나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거주 지역의 다양한 환경 역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등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

을 유추할 수 있는 관련 변수들을 통제했음에도 지역 환경 인식이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 환경 요소 간에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도출은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논거를 제공한다. 둘째, 삶의 질에 대한 지역 환경 인식의 영향이 거주 지역 간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시군 정보를 토대로 경기 북부와 남부를 구분하여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은 실제로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지역 구분은 그 자체로 일정 부분 거시적 측면을 함께 고려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차별적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내 치안 및 안전 환경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안전성은 지역 환경에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Mulvey, 2002). 일부 연구들에서도 안전성은 지역 환경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보다 삶의 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명철, 2013; Aruta et al., 2021). 따라서 지역 내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화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메르스 및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체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차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도시화 수준 및 산업단지 조성 정도 등 발전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지역에 일괄적인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경기 북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노후주택 수리나, 편의시설 확충 등에, 반면 발전 정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들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 마련에 각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접근은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여 두 개념을 마치 동일한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등치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에 기초해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제 규모나 도시화 수준, 산업구조 등 지역적 특성을 구분하는 변수들을 직접 모형에 포함 시켜 분석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진·차세영. (2018). 지방정부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연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2): 83-113.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 국토연구원. (2013). 「OECD 한국지역정책보고서」. 세종: 국토연구원.
- 권오규강은택·마강래. (2019). 도시의 쇠퇴가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도시 규모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5(2): 33-47.
- 권혜선. (2018).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경기도민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환경교육」, 31(2): 100-111.
- 김용·조성호. (2021). 경기도 남·북부 지역간 지역격차 비교 연구. 「GRI연구논총」, 23(1): 103-124.
- 김옥진. (2017). 서울지역 소득불평등과 박탈이 자원봉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층분석. 「서울도시연구」, 18(1): 77-95.
- 김은경·문영민. (2016). 수도권규제가 경기도의 경제적·사회적 형평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1-68.
- 배은석·박해금. (2016).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촌 지역주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173-199.
- 소진광. (2020).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 탐색: 지역격차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1): 3-47.
- 송주연·임석희. (2015). 도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50(6): 677-694.
- 신동호. (2017). 경로의존론과 지역회복력 개념: 지역격차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1): 70-83.
- 원태연·정성원. (2010). 「통계조사분석: SPSS PASW statistics 18.0」.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정균 외. (2021).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 경기연구원.
- 이경영·정문기·정예은. (2018).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 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2): 179-210.
- 이경영·정문기. (2019). 1인 가구의 이웃관계 영향요인 연구: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4): 315-348.
- 이병호·손용비. (2017).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종단 조사 설계 연구: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사례

- 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9(3): 1-23.
- 이영균·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 이원분·유용상. (2014). 걷는 길 이용자들의 이용만족도, 지역애착도, 지방정부 신뢰와의 관계: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1): 499-513.
- 이일현. (2016).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이승철. (2011). 도시유형별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2): 97-119.
- 이학식·임지훈. (2017). 「SPSS24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현송. (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 이훈영. (2015). 「이훈영 교수의 SPSS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이희창 외.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167.
- 이희창·박희봉. (2005). 사회자본과 지역발전. 「한국행정논집」, 17(4): 1183-1207.
-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 임보영·마강래. (2016).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집계적 자료와 비집계적 자료의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89-104.
- 임준홍. (2015). 지역별 주거만족도 격차와 결정요인: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3(1): 65-77.
- 송건섭·권용현. (2008). 광역도시권의 「삶의 질」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4): 87-107.
- 장운배. (2018). 「경기도 도시재생 전략 및 실행방안」. 경기: 경기연구원.
- 정유진. (2014).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한두. (2020). 도시위치와 인구규모에 따른 주거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 20만인 이상 34개 도시의 온라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18(3): 23-46.
- 조명래. (2011).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경기: 한울출판사.
- 최희용·전희정. (2017). 수도권 거주가구의 주거이동방향 간 주거환경만족도 차이 분석. 「도시행정학보」, 30(1): 163-180.
- Aruta, J. J. B. R., Callueng, C., Antazo, B. G., and Ballada, C. J. A. (2021).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Distress on the Link Between Socio-Ecological Factors and Quality of Life of Filipino Adults during COVID 19 Cri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5.
- Archibugi, F. (2001). City Effect and Urban Overload as Program Indicators of the

- Regional Polic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2): 209-230.
- Baron, R. M., and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essen, A., Hipp, J. R., Butts, C. T., Nagle, N. N., and Smith, E. J. (2018). The Built Environment, Spatial Scale, and Social Networks: Do Land Uses Matter for Personal Network Structure?. *Environment and Planning B: Urban Analytics and City Science*, 45(3): 400-416.
- De Vos, J., and Witlox, F. (2017). Travel Satisfaction Revisited. On the Pivotal Role of Travel Satisfaction in Conceptualising a Travel Behaviour Proces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06: 364-373.
- George, D., and Mallery, P. (2003).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1.0 update (4th ed.)*. Boston: Allyn & Bacon.
- Lee, K. Y. (2020). The Effect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on Quality of Lif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Housing Type: The Case of Gyeonggi, Korea.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8(1): 3-21.
- Martínez, L., Short, J., and Ortíz, M. (2015). Citizen Satisfaction with Public Goods and Government Services in the Global Urban South: A Case Study of Cali, Colombia. *Habitat International*, 49: 84-91.
- Mulvey, A. (2002). Gender, Economic Context, Perceptions of Safety, and Quality of Life: a Case Study of Lowell, Massachusetts (USA), 1982-96.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5): 655-679.
- OECD. (2011). *OECD Framework for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OECD Better Life Initiative: Paris, France.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eing Well-Being*. OECD Better Life Initiative: Paris, France.
- Özkan, D. G., and Yilmaz, S. (2019). The Effects of Physical and Social Attributes of Place on Place Attachment: a Case Study on Trabzon Urban Squares. *Archnet-IJAR: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Research*, 13(1): 133-150.
- Schwarz, N., and Strack, F. (1991). Evaluating One's Life: A Judgement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In Strack, F., Argyle, M., Schwarz, N. (Ed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pp. 27-44). Oxford, England: Pergamon Press.
- Sirgy, M. J., & Cornwell, T. (2002). How Neighborhood Features Affect Quality of Life.

-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1): 79-114.
- Sirgy, M. J., Gao, T., and Young, R. F. (2008). How doe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Influence Quality of Life(QOL) Outcom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2): 81-105.
- Sirgy, M. J. (2012). Residential Well-Being. In Sirgy, M. J. (Eds.), *The Psychology of Quality of Life: Hedonic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d Eudaimonia*(Vol. 50, pp. 303-324,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Neterlands: Springer.
- Stevenson, B., and Wolfers, J. (2013).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Is there any Evidence of Sat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598-604.
- Michalos, A., and Zumbo, B. (2000). Criminal Victim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3): 245-295
- Veenhoven, R. (2012). Happiness: Also Known as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nd, K., Michalos, A., Sirgy, M. (Eds.),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pp. 63-77). Springer Publishing: New York, NY, USA.
- von Wirth, T., Grêt-Regamey, A., and Stauffacher, M. (2015). Mediating Effects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Urban Quality of Life: Testing Specific Models for Safety and Acc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2(1): 189-210.
- WHO. (1961). *Expert Committee on the Public Health Aspects of Housing [Meeting Held in Geneva from 19 to 26 June 1961]: First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 뉴스시스. (2021년 2월 13일). "코로나 이후 '삶의 만족도' 30대·여성·미혼자 전체 평균보다 낮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9_0001334359&cID=13001&pID=13000
- 중부일보. (2020년 7월 1일). 민선7기 '이재명호' 후반기 돌입...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 목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0201>
- 연합뉴스. (2019년 6월 16일). [그래픽] '경기분도론' 경기 남·북부 각종 지표 비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1&aid=0010893677>
- 연합뉴스. (2021년 11월 24일). 경기도 산하 15개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이달부터 본격화.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4121000061>

-
- 이 경 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지역 간 비교, 삶의 질, 등이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Continuous Residence of Younger Generations in Rural Areas: The Case of Jeonbuk, Korea”(2021, 단독),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nvironment Satisfaction, Neighborhood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Gyeonggi, Korea”(2021, 단독),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social capital, and place attachment: the case of Seoul, Korea”(2021, 제1저자) 등이 있다(theky0501@gmail.com).
- 박 관 태:**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 주민참여, 도시정책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공동체의식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2022, 제1저자), “수도권과 부산권의 자발적 및 비자발적 주거이동 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2021, 제1저자) 등이 있다(pkt62146@naver.com).

